

과수 동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렇게 실천합시다

사과

- 하천변 등 지형적으로 냉기류 정체가 우려되는 곳은 개원을 피하고 개원 시 토양의 물빠짐을 좋게 하기 위해 암거배수를 설치함
- 동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 토양이 얼기 전 충분히 관수
- 동해 우려지역은 매년 대목과 품종의 주간부에 신문지, 짚 등으로 싸거나 백색 수성페인트를 도포함
- 동해 피해 과원은 3월 이후에 피해정도를 파악한 후 전정 실시
- 동해 피해가 심하여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나무는 제거하고, 회복가능한 나무는 피해부위는 감싸주고 전용 약제를 도포
- 동해 피해정도에 따라 지상부 가지와 과실수를 조절하고, 수세회복을 위해 영양제 엽면시비 실시

피해예방 대책



수성페인트 도포



반사필름 피복



신문지 피복



보온자재 피복



배

- 경사지에 재배할 경우 추위에 약한 품종은 경사지 위쪽에 심고, 추위에 강한 품종은 낮은 쪽에 심음
* 품종에 따라 내한성의 차이가 있는데 '만풍', '추황배'가 내한성이 강하고, '신고'는 다음으로 강하며, '원황', '화산'은 약함
- 동해피해 우려지역은 12월에 지면에서 60~90cm 부위의 원줄기에 짚, 부직포 등 피복재로 보호함
- 지면과 접한 부위나 가지의 분지점에 동해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석회유황합제나 수성 페인트를 발라 줄기마름병 감염을 예방함
- 동해피해 우려지역은 조피제거 작업시기를 늦춰서 실시함

과수 동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렇게 실천합시다



포도

- 포도나무 동해 발생지역은 냉기류가 정체되거나 건조한 곳에서 주로 발생하며, 특히 지대가 낮고 축축한 땅에 재식한 포도나무에 발생
- 재배적인 측면은 전년도 과다결실, 늦은 수확, 조기낙엽, 관수량 부족 및 병해충관리 불량 등에 의한 저장양분이 부족한 나무에서 발생
- 동해피해 받은 나무는 원줄기를 10cm 정도 남기고 절단한 후 발생하는 맹아를 잘 키워서 내년도에 결과모지로 활용하여 결실량 확보
- 동해 등으로 발생한 결손 결과모지가 1~2개일 경우 인접 결과모지에서 발생한 새가지를 이용하고, 3~4개 일 경우 장초전정 후 수평 유인하여 사용함

단감

- 동해에 약한 과수로 과실 수확이 끝나고 낙엽 후부터 다음해 발아 전까지 피해가 많이 발생함
* 수령별 동해 발생 온도는 1년생 가지는 -10~-12℃부터 피해를 받으며, 1~2년생 가지는 -14℃, 다년생 및 원줄기는 -20℃에서 피해를 받음
- 원줄기 아래쪽과 원가지에 백색 수성페인트를 발라 나무 몸체의 온도변화를 적게 하여 동해 피해를 예방함
- 과다 결실된 나무는 수체 내에 저장양분 축적이 적어 동해에 약하므로 열매숙기와 건전한 수세 관리에 유의함
- 냉기류가 정체되거나 유입되는 지역은 통로에 방풍림이나 방풍벽을 설치하여 차단하거나 우회시킴
- 가을거름을 지나치게 많이 주거나 늦게 주면 조직이 경화되지 않아 동해가 심하므로 시비관리를 철저히 함
- 피해 받은 나무는 전정시기를 늦추며, 숨은 눈에서 발아된 새가지를 유인하여 수관을 확대함

